

MDS테크 086960

탐방리포트

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

현재가(6/15): 9,120원

2분기 매출 160억 원,
영업이익 25억 원 예상

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60억 원, 영업이익 2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. 이는,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1%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56%, 50% 증가한 수치이다.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15%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22%, 71%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,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툴 및 SI 매출이 증가하고, 지능형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차량 전자 제어 장치 개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.

<도표 1> 2분기 실적 예상

(단위: 억원)

	10-2Q(E)	QoQ (%)	YoY (%)
매출액	160	20.8%	15.1%
영업이익	25	56.3%	21.5%
순이익	25	49.7%	71.2%

자료: MDS테크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자동차 생산원가 중
전장부품 비중 40%에
이를 전망

차량이 주행 중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근간은 ECU라 불리는 전자 제어 장치로, 자동차가 고급화, 지능화되면서 차량에 탑재되는 ECU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. 자동차에 탑재되는 ECU는 1980년대에는 8~10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7개로 증가했으며, 도요타의 렉서스 경우에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따라, 자동차 생산 원가 중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0%에서 2015년 40%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, 전기차의 경우 전장부품의 비중이 생산 원가의 70%에 이를 것으로 보여,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관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<도표 2> 자동차 생산원가 대비 전장부품 비중

영역	2002년	2015년
인테리어	13%	24%
파워트레인	4%	9%
새시	1%	5%
바디	2%	2%
Total	20%	40%

자료: Mckinsey/PTW-Hawk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
향상 계획에 수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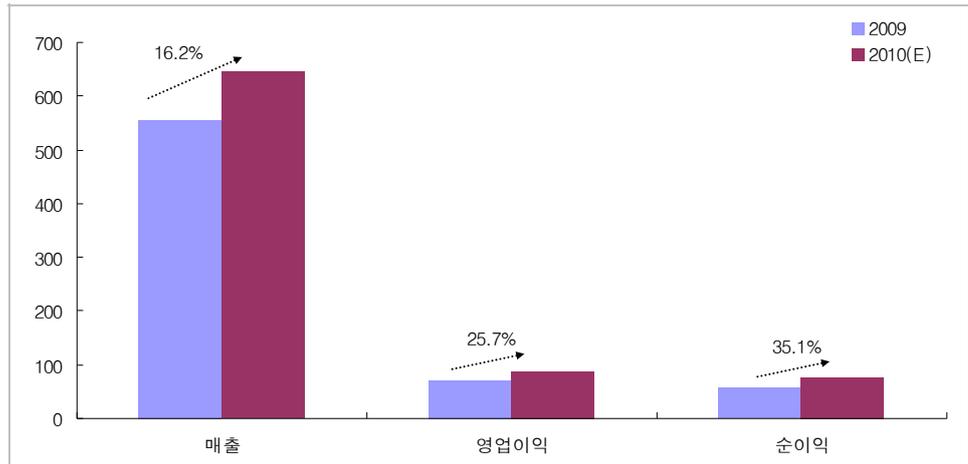
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/항공 분야 내장형 시스템 시장 성장도 동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지난 2월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는데, 소프트웨어 국산화 무기체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동차, 국방, 조선 및 로봇 분야의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를 통해, 2008년 1%에 불과한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2013년까지 5%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. 동사는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NEOS, 개발 도구, 테스트 솔루션 등 내장형 시스템 개

발에 필요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.

2010년 예상 매출 645억,
영업이익 YoY 26% 증가
예상

동사는 자동차 및 국방/항공 분야 내장형 시스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와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에 따른 테스트 솔루션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% 증가한 645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, 수익성 측면에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 26%, 35%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<도표 3> 2010년 실적 예상



자료: MDS테크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